

- 모탈컴뱃2 -

게임계의 지존 세가 - 리뷰

장르: 대전액션 용량: 24M 제작사: 어클레임 발매시기: 1994

리뷰 작성: nungcool [nungcool84@naver.com]

[등록: 2000년 09월 26일]



타이틀 화면

MD용으로 발매된 모탈컴뱃은 1, 2, 3, 울티메이트 모탈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원작이 후속작보다 이름값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탈컴뱃은 2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고, 특히 북미와 유럽쪽에선 비정상적으로 많은 인기를 구가하였습니다.

1994년 당시 게임잡지를 보면 인기순위가 일본/한국/북미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미 쪽은 항상 모탈컴뱃2가 1위였고 전 기종 인기순위에서도 MD용 모탈2가 1위를 했습니다.

슈퍼패미콤으로 이식된 모탈컴뱃2는 색감도 화려했고 음성도 충실히 이식되어 아케이드와 분위기가 비슷했던 반면 MD용은 해상도도 떨어지고 짙은 색감에 캐릭터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럼에도 MD용이 인기있었던 이유는 MD용의 캐릭터움직임이 부드럽고 빨랐기 때문입니다.



캐릭터 선택트 화면



자니케이지의 어퍼컷

그리고 모탈2는 5버튼을 사용하는 게임인데 메가드라이브의 기본패드는 스타트를 포함해서 4버튼이었습니다.

MD용은 4버튼만으로 모든 기술과 페이탈리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체계를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LK(로우킥)와 HK(하이킥)은 그대로 두고 LP(로우펀치)와 HP(하이펀치)를 버튼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HP를 누르고 있다 때의 기술은 LK이나 HK으로 변경되었고 펀치 두개를 동시에 입력하는 기술은 버튼 하나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앉아서 LP는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작과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3버튼의 간편성 때문에 오히려 3버튼을 선호하는 플레이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옵션에서 6버튼타입으로 설정하면 앉아서 LP를 제외한 모든 기본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앓아 LP는 나중에 32X용 모탈컴뱃2에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버튼타입을 설정하는 옵션

[3버튼의 간편성에 대해 몇 가지 예]



조니 케이지의 낮은 전기구



조니 케이지의 높은 전기구

[6버튼]

낮은 전기구: ← ↓ → + LP

높은 전기구: → ↓ ← + HP

[3버튼]

낮은 전기구: ← ↓ → + P

높은 전기구: → ↓ ← + P



리우강의 서서 화염구



리우강의 앉아 화염구

[6버튼]

서서 화염구: → → , HP

앉아 화염구: → → , LP

[3버튼]

서서 화염구: → → + P (방향키와 버튼입력을 동시에)

앉아 화염구: → → , LP (방향키를 입력 후 버튼을 입력)



키타나의 부채 던지기

[6버튼]

부채 던지기: → → LP + HP (방향키와 버튼입력을 동시에 입력하거나 방향키를 입력 후 버튼을 입력)

[3버튼]

부채 던지기: → → , P (방향키를 입력 후 버튼을 입력해야됨)

3버튼으로 안 되는 기술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죠니케이지의 페이탈리티 목 세 번 날리기입니다.

페이탈리티 커맨드를 넣고 추가입력을 넣으면 어퍼컷을 세번하게 되는 기술인데, 3버튼으로는 버튼을 다르게 조합해 보아도 기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앉아 LP가 게임 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간편한 조작방식은 오로지 MD와 32X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MD판이 좋았습니다.

단점은 컴퓨터들의 인공지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서너 판까지는 기본기만 잘 써도 쉽게 이길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컴퓨터가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행동합니다. 플레이어가 점프를 하면 동시에 점프하여 먼저 차버리는 방식.

컴퓨터를 상대로 가장 유용한 기술은 적당한 거리유지 후 점프 킥입니다.

난이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적과의 거리를 잘 계산하면 점프 킥만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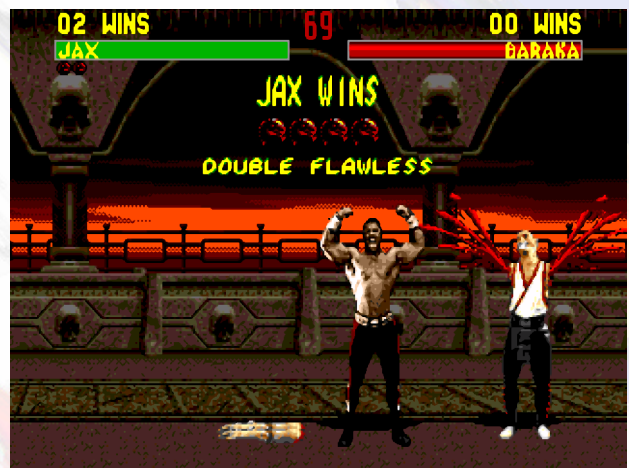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모탈 2에서 수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페이탈리티 모음]



[3위] 조니케이지의 페이탈리티

강력한 어퍼컷으로 상대의 머리를 세번 날려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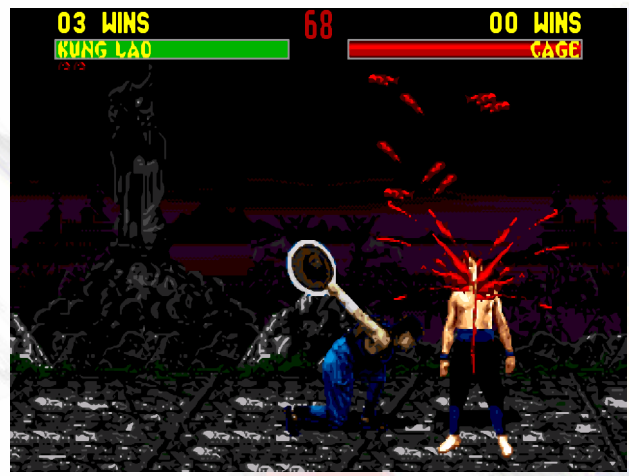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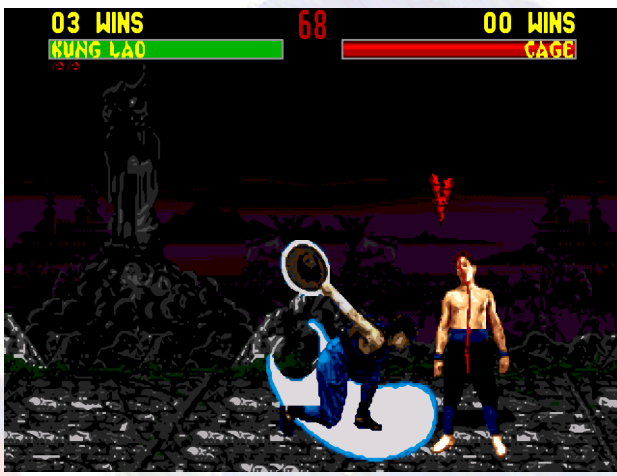
잔인 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한 번도 아플 텐데 세 번씩이나



[2위] 잭스의 페이탈리티

상대의 양팔을 뽑아버리며 뽑힌 자리는 피가 솟구친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으니 다행이네요.



[1위] 쿵라오의 페이탈리티

모자로 상대의 몸체를 세로로 두 동강 내며 몸체의 단면이 드러난다.
이 기술만큼은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을 듯.

- THE END -